

멕시코 아구아스칼리엔페스 선교소식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기억합니다. 멕시코를 위한 가장 소중한 기도를 생각합니다. “Padre nuestro, que estas en los cielos, ...Venga tu reino; hagase tu voluntad, asi en la tierra como en el Cielo.” (빠드레 누에스트로, 께 에스따스 엔 로스 씨엘로스, 뱅가 뚜 레이노; 아가쎄 뚜 볼론따, 아씨 엔 라 띠에라 꼬모 엔 엘 씨엘로.) 처음에 이 말들이 방언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는 이해하며 일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멕시코 땅에 임하소서”하며 기도하면 마음이 소망으로 차오릅니다.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멕시코의 거친 땅에 임하시고 항상 새롭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멕시코 선교를 위하여 기도와 격려로 선교비 후원으로 동역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속에도 저의 삶속에도 주님나라가 주님의 다스리심이 넘치시기를 소망하며 2026 년 2 분기 선교 소식을 전합니다.

1. 울창한나무교회 (Arbol Frondoso) 세례식

2026 년도 부활주일 이었던 4 월 5 일 16 명의 교우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을 할 때 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누군가에게 예수의 대한 믿음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분께 생명을 드리며 세례를 받는 이 일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며 항상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이번에는 산타로사 마을에 세운 교회에서 두 명의 자매가 세례를 같이 받아 더욱 의미가 있었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멕시코의 중부 핵심도시의 복음화율은 2-3% 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대체로 오천명 미만인 시외곽의 마을 지역들은 복음화율이 1-2%가 안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시골지역들은 오백년 이상 멕시코를 지배하고 있는 카톨릭의 비성경적, 우상적 신앙이 전통으로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복음전도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16 년이상 시골마을 지역의 복음 전도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 산타로사 지역의 교회에서 두 명의 세례자가 나온 것으로 큰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현재 교회 사역은 아구아스칼레엔페스 도시의 Arbol Frondoso 교회 (울창한나무교회, 주일 평균 예배 참석 인원 160 명)와 산타로사 지역의 개척교회 (주일 평균 예배 참석인원 20 명)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 지역 Jesus Teran 과 Santa Rosa 에서 매주 어린이 성경 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 시내의 저희 교회를 포함하여 4 곳에서 매주 어린이 성경 클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경 클럽 사역을 진행하는 7 개 지역에서 매주 항상 수고하는 40 여명의 교사, 보조교사들을 위해 특별히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 소그룹 모임 (가정교회)

울창한나무 교회에는 총 13 개의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지역 구역별로 보통 4-6 개의 가정으로 한 그룹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각 그룹의 상황의 따라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주중 모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가정 교회처럼 운영합니다. 소그룹 모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 교제와 나눔의 시간들이 소그룹 모임에서 매주 이루어집니다. 셀모임의 특성처럼 계속해서 모임이 모임을 낳는 사역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어린이 사역

8 주간의 성경공부 (Gran Aventura 교재)를 마친 아이들이 성경공부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2026 년 1 월 중순에 교회 가까운 곳 (villas de los rios) 그리고 시골 지역 (Jesus teran)에 큰 어린이 전도행사를 진행하였었는데 그 때 villas de los rios 지역 행사에 아이들이 170 명 참여했고 Jesus teran 마을 행사에서는 150 명이 아이들이 참석했었습니다. 후속 모임을 매주 토요일 마다 모임을 이어가며 두 달 동안 Gran Aventura (대모험) 이라는 제목의 성경공부 어린이용 교재를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성경말씀을 가르쳐왔습니다. 매주 두 곳의 모임에는 매주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30-50

명씩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Jesus terran (아래사진 위쪽) 마을에서는 42 명의 아이들이 4 월 15 일 성경공부 수료증을 받았고 Villas de los Rios 마을 (사진 아래쪽) 어린이 성경클럽에서는 두 그룹으로 총 48 명의 아이들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수고한 교사들에게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어린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올 여름에는 7 월 3 켄주의 3 일간의 어린이 방학성경학교가 본교회에서 예정되어 있고 (작년에 270 명의 어린이 참가), 8 월 둘째주에는 3 일간의 어린이 여름 성경캠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선교센터에서 예상되는 참여인원 약 150 명의 아이들을 40 여명의 교사와 자원 봉사자들이 말씀과 여러 활동으로 섬길 예정입니다.



4. 고아원(보육원) 개설을 위한 준비

요즘 저희 사역의 주요 관심과 움직임은 고아원 인수에 있습니다. 지난 3 월 달에 보고 드린대로 저희는 고아와 보호,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Aguascalientes 주의 유일한 개신교회 신앙의 바탕을 둔 Dulce Refugio (sweet refuge) 라고 불리우는 고아원 있습니다. 23 년의 사역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제 고아원 원장 자매가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서

사역 인수자를 기도하면서 찾고 있었다고합니다. 지난 해부터 저희는 새로운 고아원 개설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있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실 전혀 계획에 없었던 고아원인수를 위한 사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역 인수에 관련한 사회복지 재단 법인 새로운 등록 절차가 진행중이고 14 명의 자원봉사자팀원들이 5 월 부터 각자 자기 봉사 분야의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9 월까지 준비가 마쳐지면 저희 팀이 10 월 후반 부터는 직접 사역을 진행해보고 2027 년 1 월부터 공식적으로 고아원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현재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28 명이 있고 48 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수를 위해 약 500 만 멕시코 페소의 재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월 까지 필요한 재정에 30%가 채워졌었는데 4,5 월을 지나면서 후원금이 성도 개인 세 분과 한 교회를 통하여 필요한 재정의 약 10%가 더 채워졌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재정도 주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종들의 후원을 통해 넘치게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일은 문제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손에든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 산지를내게 주소서” 갈망하던 갈렙의 신앙의 본받기 원합니다.



멕시코 정명남, 권정희 (갈렙, 조셉) 선교사 2026 년 6 월 12 일